

김건희 논문·선문대 예산·사교육 실태… 현안 공방 ‘격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논문 대필 정황에 연구윤리 논란
선문대 지원금 통일교 행사 의혹
유아사교육 실태 부실 관리 지적
교육부 “사실 확인 후 조치 검토”

통일교와 관련된 선문대학교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사업비를 교세 확장이나 종교 행사에 활용했다는 부적절 사용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및 연구윤리 문제를 비롯해 선문대 재정지원금 집행 논란, 유아 영어 사교육 실태 등 교육정책 신뢰와 관련된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건희 논문 대필·연구윤리 공방

교육 현장의 신뢰를 흔든 연구윤리 관리 부실 문제가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이 사실상 대필로 작성된 정황이 있다며 “논문 작성 과정에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리서치 업체가 김 여사와 설민선 한경국립대 교수에게 동시에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했고, 이 자료가 논문 내용에 그대로 활용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교육부가 2022년 연구관리

지침 개정을 약속했지만, 대학 자율성 문제를 이유로 사실상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해당 지침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부처 간 규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이 지연된 상태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자체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지만, 다시 검토하겠다”며 “연구부정 방지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호 위원장 역시 “박사논문을 대학 내부 심사만으로 정당성이 확보되는 구조는 문제”라며 “교육부가 논문 윤리 기준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문대 지원금, 통일교 유용 의혹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도마에 올랐다. 선문대학교가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통일교 관련 행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문대가 산학협력·현장실습 명목으로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아 사실상 통일교 행사에 동원했다”며 “선교 영어실습, 평화 순례 등 이름으로 9500만원이 쓰였고, 이후

신학과 구분도 없이 예산이 흐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선문대 지원액이 2배 이상 늘었는데, 종교단체와 연계된 프로그램에 세금이 쓰였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장관은 “사실이라면 철저히 조사하고 환수를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비교육적 사용이 있었다면 법적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아 영어사교육 부실 관리

조기 영어 사교육 확산과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실 문제도 교육위원회 질의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아 영어학원들의 과도한 경쟁과 입학시험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와 현실이 괴리돼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최초로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3%에 해당하는 23곳이 레벨 테스트를 시행 중이라는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은 “일부 프랜차이즈형 영어유치원은 입학시험을 ‘레벨테스트’ 대신 ‘CMC(클래스 매치 체크)’ 등으로 이름만 바꿔 운영하고 있다”며 “형식상 시험이 아니라 ‘학습 수준 진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유아를 선발하기 위한 입학시험으로 활용되고 있어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유아사교육이 조기경쟁을 조장하고 가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교육부가 실질적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은 “전수조사 과정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며 “유사 명칭 학원까지 포함한 재조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하루 20명 이상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현실은 어른들이 만든 결과”라며 “영유아 사교육은 단순한 학원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병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강력한 규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남대문 쪽방촌 주민 142세대 ‘해든집’ 이주

강제철거 없는 순환정비 첫 사례
상담·자활·편의시설 한곳에 조성
“약자와의 동행” 서울형 복지모델

서울역과 남산 사이에 위치한 ‘남대문(양동) 쪽방촌’ 주민들이 새 보금자리인 공공임대주택 ‘해든집’으로 이주를 마쳤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든집은 지상 18층 규모로, 지하 3층부터 지상 5층까지는 상담소와 자활시설 등 복지공간으로, 6층부터 18층까지는 임대주택으로 구성됐다. 지난 9월 초 입주를 시작해 현재 142세대가 입주를 완료했다.

‘해든집’은 ‘해가 드는 집, 희망이 스며드는 집’이라는 뜻으로, 2021년 정비 계획 결정 후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돼 약 4년 만에 준공됐다. 특히 건물 5층에는 쪽방 주민의 상담·의료·자활지원을



‘남대문(양동) 쪽방촌’ 주민들이 새 보금자리인 공공임대주택 ‘해든집’으로 이주를 마쳤다. 사진은 임대주택 내부 모습. /서울시

담당하는 ‘남대문쪽방상담소’가 이전해 입주민 정착을 돕고 있으며, 공동작업장·편의점·빨래방 등 생활편의시설도 함께 운영 중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쪽방촌을 전면 철거

하는 방식이 아닌, 주민이 먼저 새 주택으로 이주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민간 주도 순환정비’의 첫 사례다. 서울시는 “추가 비용과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개발 방식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오후 현장을 방문해 입주민들을 격려하고, 사회공헌단체 및 기업과 함께 생활용품을 전달했다.

오 시장은 “해든집은 강제 퇴거 없는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한 모범사례”라며 “도시의 성장 속에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누구에게나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든집 입주민의 생활 변화를 분석해, 영등포 등 다른 쪽방 밀집지역의 순환정비사업 모델에도 활용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경기 광주시,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추진

‘선택형 직불사업’ 시행

경기 광주시는 국비 100%로 추진되는 ‘2025년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을 본격적 이행한다.

이 사업은 논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국가 단위의 저탄소 실천 사업으로 지역내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저탄소 영농 활동에 대해 이행활동비를 지급하는 ‘선택형 직불사업’의 일환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사업 참여 농업인의 이해도 제고와 원활한 이행을 위해 도청농협 교육장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주관 교육을 실시했다.

또 ‘2025년 친환경 벼 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 사업’도 병행 추진 중이다.

현재 시는 친환경 벼 재배 생산자 단체를



경기 광주시청.

대상으로 친환경 자재와 신규 필지 확대에 따른 소득 보전을 지원하고 있다.

방세환 시장은 “저탄소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행성과 감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광주시형 저탄소 농업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몽골 교원 24명, 서울시 디지털교육 연수

서울시교육청, AI·ICT 노하우 전수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몽골 현지 교원과 재한몽골학교 교원 24명을 초청해 ‘몽골 교원 디지털교육 세계화 연수’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2006년 서울시교육청과 몽골 울란바토르시청 간의 교육교류협

약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서울교육이 축적해 온 ICT·AI 활용 수업 노하우를 몽골에 전수하고, 현지 디지털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수는 ‘서울시교육청 LEAD 교사단(Leading Educators for Achieving digital learning Development)’이 실습·수업 중심으로 진행한다. 참가 교원들은 ▲AI 윤리를 중심으로 한 교과용

합 수업 설계 ▲언플러그드 활동 및 영상 제작 실습 ▲로봇·센서를 활용한 피지컬 컴퓨팅 수업을 체험한다.

16일에는 연수단이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양 교육청 간 디지털교육 정책을 논의하고, 23일 수료식에는 정근식 교육감이 참석해 연수단을 격려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몽골 교원 327명을 초청해 연수를 실시해왔으며, 올해는 몽골 교원 10명과 재한몽골학교 교원 14명을 새로 초청했다.

/이현진 기자



▲스페이스 X 스타십, 11차 무인 지구궤도 시험비행 성공 /사진 뉴시스
▲캄보디아 대기업 사칭한 로맨스 스캠 조직 83명 무더기 적발

▲우크라, 러 향한 공세 강화… 17일에는 트럼프와 무기 지원 논의
▲美, 中 국적 선박에 입항 수수료 징수 개시… 통상 분쟁 본격화

▲美 셧다운 13일차… 공화 하원의장 “셧다운 협상 없을 것”
▲멕시코, 홍수 피해로 인명피해 속출… 최소 64명 사망·실종